

20 Years of Classical Music/ September 2007

Naxos new release



8.570233 **브람스:** 교향곡 4번, 헝가리 춤곡 발췌
마린 알습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70523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발췌, 리베르탱고, 오블리비온 외
호리시오 페레르(보컬) 마리아 레이-솔리(소프라노) 외 비수스 앙상블

8.557844 **리스:** 피아노협주곡 C#단조, 스웨덴국가 변주곡 외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예블레 심포니 우베 그로트

8.557980 **펜데레츠키:** 테데움, 폴리모르피아, 폴란드 레퀴엠 중 사쿰느
여러 가수들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안토니 비트



8.570293 **바그나-스토코프스키:** 관현악 하이라이트 (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외)
본머스 심포니 호세 세레브리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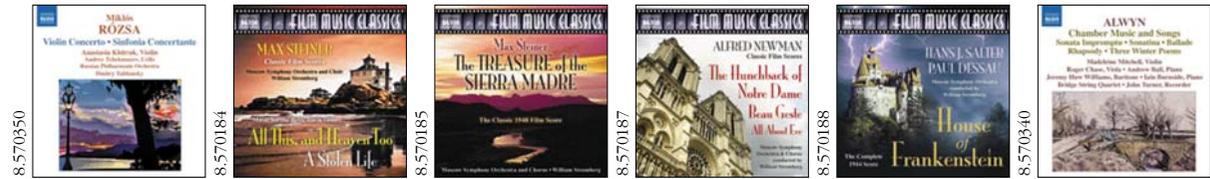
8.570993 **라모:** 오페라 아리아 장-폴 푸세쿠르(카운터테너) 오페라 라파에트 라이언 브라운

8.570971 **야마다:** 나가우타 심포니, 마리아 막달레나 외
일본 전통음악가들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타쿠오 유아사

8.570351 **살리반:** 아일랜드교향곡, 발레 피인애플 풀 발췌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데이비드 로이즈-존스

8.557498 **아이비스:** 아메리칸변주곡 외 밴드를 위한 작품들
미합중국 해병군악대 터모시 W 폴리 대령

8.559315 **크라우스:** 발레음악 (2편의 판토마임, 아부 외)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페테르 슌드크비스트



8.570350 **로자:** 바이올린협주곡, 심포니 콘체르탄테
A 키트루크(vm), A 체코마초프(vc) 러시아 필하모닉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8.570184 **스테이냐:** 지상과 천국의 모든 것, 잃어버린 일생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윌리엄 스트롬버그

8.570185 **스테이냐:** 시에라 미드레의 보물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윌리엄 스트롬버그

8.570187 **누만:** 노트르담의 꿈추, 이브의 모든 것, 보 제스트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윌리엄 스트롬버그

8.570188 **잘터 & 데사우:** 프랑켄슈타인의 집
모스크바 심포니 윌리엄 스트롬버그

8.570340 **올란:** 실내악작품들과 가곡
마렐라인 미켈(vm) 로저 제이스(va) 앤드류 볼(pf) 루지 월딩(vc) 외



8.570190 **로자:**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 헝가리 농요 변주곡 외
필립 쾨트(vm) 윌리엄 울프렘(pf)

8.570441 **르클레르:**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작품 전집
뤼첵 스미스(f) 존 기본즈(emb) 토라 블러스타인(vc)

8.570413 **백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애설리 위스 & 마틴 로스코이(pf)

8.570535 **알베니스:** 여행의 추억, 나비라 외
쿠에르토 곤살레스(pf)

8.570261 **다케미츠:** 피아노작품집
코타로 후쿠마(pf)

8.570311 **복스테후데:** 오르간 작품집 Vol.6
줄리아 브라운(org)



8.570510 **로베트, 탠스맨:** 브라우어, 히나스테라, 디용
토마 빌로토(guitar)

8.570456 **슈만:** 합창음악(로망스와 발라드)
아쿠아리스 마르크 미샤엘 드 스메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제 27호 | October 2007



News

아울로스의 2007년 그라모폰 후보작 음반들
불세출의 천재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 DVD

Hot Issues

MDG 모차르트 돈조반니(관악앙상블 편곡)

Cover Story

순수한 정열 곁결한 품격 나탄 밀스타인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순수한 정열 고결한 품격

나탄 밀스타인 Nathan Milstein

나탄 밀스타인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1904년(?)에 태어났다. 일곱 살에 표트르 스톨야르스키(Pyotr Stolyarsky)선생한테 배우면서 음악공부를 시작했고, 1914년 그러니까 약 10세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 1914년에는 마지막 학생 콘서트에 출연했었는데, 당시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5세의 나이로 그와 함께 무대에 섰었다. 밀스타인의 공식 데뷔연도는 1920년. 역시 고향 오데사에서였는데, 그가 연주했던 곡목은 글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작곡가가 직접 지휘했던 무대였다. 그 후 약 5년간은 러시아에서 여러 콘서트를 통해 점점 성공적인 무대경력을 쌓아갔다. 이 시기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함께 조인트 리사이틀을 마련했던 일은 그가 평생 동안 기억했던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다. 1925년에 밀스타인과 호로비츠는 콘서트 여행을 위해 러시아를 떠났다. 사실 이때부터 그는 외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었다. 두 사람은 가끔 피아티고르스키가 주재한 트리오 콘서트에 참석하곤 했다. 1926년 밀스타인은 브뤼셀로 가서 거목 이자이로부터 많은 연주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3년 후인 1929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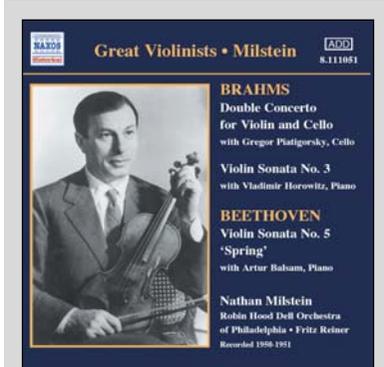
디어 미국 데뷔무대를 가졌다. 그는 이 연주회가 있은 후 바로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 시민권은 1942년에 나왔다.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유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밀스타인은 장수한 편이다. 1992년 런던에서 타계했다.

순수함과 고귀함

밀스타인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러시아 바이올리니

스트이면서도 가장 '러시아적인 이미지가 적은'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이다. 많은 러시아 연주자들이 이른바 '진한 슬라브 정서'로 호소하는 경향을 보여줬지만, 밀스타인은 매우 독특한 자신만의 정서를 가지고 감정에 의한 연주를 펼치기보다는 지성으로 통제된 감정을 연주했다. 그의 이지적인 이미지는 그의 용모에서부터 잘 드러나지만, 그의 바이올린 연주의 본성은 끊임없이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력 혹은 지성에 의해 단단히 통제받았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자신의 '파가니니아나'를 연주할 때 보면, 밀스타인은 정말 눈부신 기교를 지닌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기교가 대단히 뛰어났고, 경력 초반부터 비르투오소 기교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기교를 앞세운 연주가보다는 매우 개성적인 해석가로 거듭 성숙해갔다. 그는 화염 같은 열정이나 기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음악은 언제나 엄격한 지성으로 통제되었다. 들리는 음은 그의 외모처럼 말쑥하게 정제되어 있었는데, 그 대목은 바로 LP시절부터 음반 애호가들이 탄노이나 알텍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열광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밀스타인은 1716년 제작된 스트

라디바리우스를 사용했는데, 그의 바이올린은 언제나 깨끗하고 순수했다. 물론 그렇다보니 그의 바이올린은 대체로 스케일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내면으로 연소되는 불길은 너무도 뜨겁다. 그는 강한 운지를 쓰는 연주가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손가락을 휩쓸 듯이 옮겨가는 방식으로 그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갔다. 밀스타인은 비브라토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 폭이 넓지도 않다. 장점은 인토네이션이 비길 데 없이 정확하다는 점이다.



8.111051
BRAHMS:
Double Concerto
Violin Sonata No. 3
BEETHOVEN:
Violin Sonata No. 5
'Spring'
(1950-51)

진정한 의미의 테크닉 완성-바흐

밀스타인의 가장 유명한 연주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연주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밀스타인은 그 명곡에 실로 수십 년 동안 깊은 애정을 보였었고, 음원은 오랜 세월이 걸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테크닉의 문제에 주목하면, 그의 능숙한 테크닉이 결코 예상외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은 그가 바흐의 음악에 무관심했던 러시아 부르주아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밀스타인은 그의 스승이었던 표트르 스톨야르스키, 혹은 레오폴드 아우어한테도 바흐를 배운 일이 없었다. 그의 바흐 연주는 막스 레거 같은 현대 독일 지성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프리즘으로, 독학으로 바흐 작품의 양식을 터득하고 고된 훈련을 거듭한 끝에 도달한 세계였다. 그는 완전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유명한 파르티타 2번의 제 5곡인 '샤콘'을 연주회 무대에 즐겨 올렸고, 1950년대에는 전곡녹음도 감행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인 1973년 런던의 콘웨이 홀에서 마침내 유명한 녹음을 남기게 되었다.

밀스타인 연주는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리듬감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리듬적 활력에 대해서는 소나타 3

번의 제 4곡 '알레그로 아사이'나 파르티타 3번의 '전주곡'에서 만끽할 수 있는데, 밀스타인은 무궁동으로 약동하는 그 빠른 악장들을 통해 우리를 단번에 흠뻑 때료시킨다. 느린 악장에서 그의 리듬에는 활력뿐만 아니라 귀족적인 품위가 느껴진다. 파르티타의 춤곡들에서 들려오는 밀스타인의 리듬은 고급스런 궁정이나 어울릴 품격 높은 것이다. 밀스타인은 비브라토를 상당히 자제하고 대신 음을 단단하게 모아 아주 곱게 뿜어내고, 강렬한 인상의 레가토를 구사한다. 악구를 명료하게 들려주는 그의 솜씨 덕분에 바흐의 대위 선율들은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이 사실은 소나타 3번의 제 2곡 '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관심 곡목인 '샤콘'은 밀스타인의 이 곡에 대한 숙련의 정도를 말해준다. 날찍한 스케일로 여유만만하게 조감하고 있는데, 전체가 팽팽한 긴장으로 지적인 통제에 묶여 흐르기 때문에 늘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 테크닉이란 단순히 근육적인 운동 능력이 아니라 연주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미디어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던 밀스타인.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명곡은 그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야말로 바흐를 통해 테크닉의 완성을 본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보인다.

낙소스에서 발매한 밀스타인 음반들



8.110975
DVORAK / GLAZUNOV: Violin Concertos (Milstein) (1949-1951)



8.110977
MENDELSSOHN / TCHAIKOVSKY / BRUCH: Violin Concertos (Milstein) (1940-1945)



8.111259
TCHAIKOVSKY: Violin Concerto / Encores (Milstein) (1949-53)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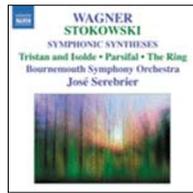


Naxos 8.570233

브람스: 교향곡 4번, 헝가리 춤곡 발취

마린 알습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대 위의 우먼파워를 대표하는 이름인 마린 알습. 그가 런던 필과 함께 진행했던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이 드디어 완결되었다. 함께 수록된 7편의 헝가리 춤곡은 나소스의 위촉으로 피터 브라이너가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한 버전을 녹음한 것이다.



Naxos 8.570293

바그너-스토코프스키: 관현악 하이라이트(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외)

본머스 심포니 / 호세 세레브리에르

스토코프스키는 지휘자로서 바그너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선보이기 위해 힘썼다. 이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자신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더하여 관현악곡의 형태로 재조합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라인의 황금 중 신들의 발할라 입장,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사랑의 밤, 파르지팔 3막, 발퀴레 중 마법의 불 음악과 발퀴레의 승마를 수록.



Naxos 8.557993

라모: 오페라 아리아

장-폴 푸세쿠르(카운터테너) / 오페라 라파예트 / 라이언 브라운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상급 카운터테너 장-필립 푸세쿠르의 라모 아리아 모음집. 영상물에서의 열연으로 널리 알려진 '플라테'를 비롯, '카스토르와 폴뤼', '다르다뉴', '조로아스트르', '차이스', '나이스'와 같은 라모의 대표적인 오페라들에서 발췌한 다양한 개성의 아리아들이 갈무리되었다.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 마니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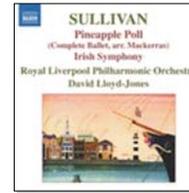


Naxos 8.557971

야마다: 나가우타 심포니, 마리아 막달레나 외

일본 전통음악가들 /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 타쿠오 유아사

고사쿠 야마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이 나라에 서양음악을 정착시켰던 핵심인물이었다. 일본 전통음악과 서양클래식의 조화에 큰 힘을 기울였는데, 그 대표작이 나가우타 교향곡이다. 일본 전통음악극인 나가우타 가수들과 샤미센 등의 전통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접목시킨 독특한 개성의 작품. 1919년 카네기홀에서 초연된 '마리아 막달레나'는 R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느껴지는 관현악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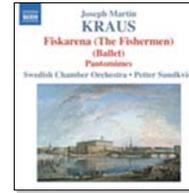


Naxos 8.570351

설리반: 아일랜드교향곡, 발레 '파인애플 폴' 발취

로얄 리버풀 필하모니 / 데이비드 로이즈-돈스

설리반은 단짝 극본가 길버트와 더불어 영국 오페레타의 황금기를 열었던 인물이다. '파인애플 폴'은 거장지휘자 찰스 매케라스가 설리반이 남긴 주옥같은 선율을 엮어서 만든 발레작품. 21세 때의 작품인 교향곡 '아일랜드'는 이 작곡가의 천부적인 선율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오페레타와는 또 다른 설리반의 이면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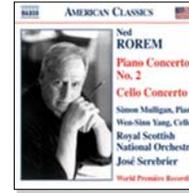


Naxos 8.557498

크라우스: 발레음악(2편의 판토마임, 어부 외)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 페테르 슌드크비스트

크라우스는 18세기의 가장 재능있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하이든과 모차르트도 그의 재능을 높이 샀다. 교향곡은 물론, 색채적인 관현악법과 극적인 전개를 갖춘 그의 발레곡들 역시 당대에 큰 인기를 누렸다. 초기 발레적인 두 개의 판토마임, 1787년 스톡홀름에서 공연된 글록의 오페라 '아르미데'에 삽입하기 위해 작곡했던 발레음악,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Fiskarena' (어부)를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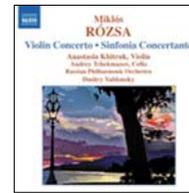


Naxos 8.559315

로렘: 피아노협주곡 2번, 첼로협주곡

사이먼 멀리건(pf) / 앙웬신(vc) /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 호세 세레브리에르

미국을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인 네드 로렘. 1951년 모로코에서 완성된 피아노협주곡 2번은 전형적인 미국기질을 담은 작품으로, 특히 제2악기 기반을 둔 중악장은 독주자와 악단 모두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만한 난곡이다. 2002년 작품인 첼로협주곡은 정통적인 3악장 포맷 대신, 제각각의 독특한 제목이 붙은 8개의 악장이 이어지는 색다른 형태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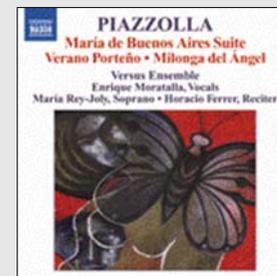


Naxos 8.570350

로자: 바이올린협주곡,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A. 키트루크(vn) / A. 체크마초프(vc) / 러시아 필하모닉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미클로시 로자는 헝가리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영화음악의 대가였다. '벤허', '퀴바디스', '아이반호', '엘시드'와 같은 대하역사극들의 음악들이 그의 손에 의해 탄생하였다. 바이올린협주곡은 화려한 비르투오조와 헝가리의 향토적인 서정미가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하이페츠를 위해 완성한 곡이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하이페츠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위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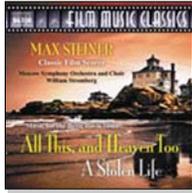


Naxos 8.570523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발취, 리베르탱고, 오블리비온 외

호리시오 페레르(보컬) / 마리아 레이-졸리(소프라노) 외
버수스 앙상블

피아졸라는 거리의 음악이라고 천대받던 탱고를 예술장르로 업그레이드 시켰던 주인공이다. 그의 탱고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의 하이라이트와 리베르탱고, 오블리비온, 천사의 밀롱가와 같은 대표결작들을 엄선한 음반. '부에노스...'의 대본가이자 피아졸라의 긴밀한 동반자였던 문학가 호리시오 페레르가 직접 녹음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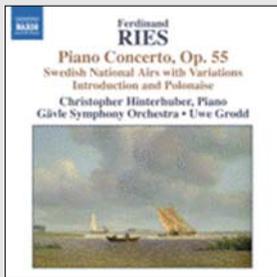


Naxos 8.570184

스테인너: 지상과 천국의 모든 것, 잃어버린 일생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 윌리엄 스트롬버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막스 스타이너는 20세기 중반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음악작곡가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등이 바로 그가 음악을 맡았던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본 음반에는 명배우 베티 데이비스가 출연했던 두 편의 작품(지상과 천국의 모든 것, 잃어버린 일생)의 음악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844

리스: 피아노협주곡 C#단조, 스웨덴 국가 변주곡 외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 예블레 심포니 / 우베 그로트

페르디난트 리스는 베토벤의 애제자이자 당대의 실력과 피아니스트였다. 그가 남긴 8곡의 피아노협주곡은 훔멜의 작품들과 더불어 고전협주곡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특히 1812년에 완성한 C#단조 협주곡은 화려한 비르투오조와 대단히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숨겨진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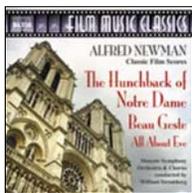


Naxos 8.570185

스테인너: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 윌리엄 스트롬버그

험프리 보가트의 열연이 돋보였던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은 40년대 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로 1948년 존 휴스턴 감독에게 감독상과 각본상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히트작이었다. 막스 스타이너가 맡았던 이 고전영화의 음악을 존 모건이 재구성하였다. 극중 디노 솔도가 연주하던 하모니카 선율이 향수를 자아내며, 웅대하면서도 친근한 메인 타이틀 역시 놓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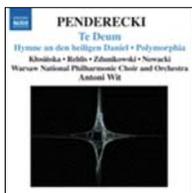


Naxos 8.570187

뉴먼: 노트르담의 꼽추, 이브의 모든 것, 보 제스트

모스크바 심포니와 합창단 / 윌리엄 스트롬버그

첼레르를 사사했던 알프레드 뉴먼은 헐리우드에서 영화음악관련 작곡가와 지휘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세기 중반 헐리우드의 주류였던 로맨틱, 심포니 스타일의 영화음악의 기초를 닦았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아카데미상 후보작이었던 <노트르담이 꼽추, 1939>를 비롯 <보 제스트 1939>, <이브의 모든 것 1950> 등이 대표작들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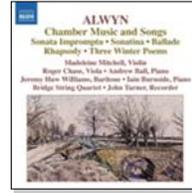


Naxos 8.557980

펜데레츠키: 테데움, 폴리모르피아, 폴란드 레퀴엠 중 사콘느

여러 가수들 /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 안토니 비트

폴란드의 거물 작곡가 펜데레츠키가 자국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위해 완성한 작품 들을 수록하였다. 신 낭만주의 성향의 합창곡인 '테 데움' 은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피선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된 곡이다. 반면 2005년 작품인 현을 위한 사콘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서거를 애도하는 작품이다.



Naxos 8.570340

올윈: 실내악작품들과 가곡

마델라인 미첼(vn) / 로저 체이스(va) / 앤드류 볼(pf) / 루치 윌딩(vc) 외

영국 작곡가 올윈은 미국의 바버와 더불어 낭만주의음악의 전통을 가장 늦게까지 고수했던 작곡가이다. 그는 머리보다 마음에 호소하는 음악을 선호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과 성악곡들 역시 이러한 작곡가의 지향점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즉흥소나타, 바이올린소나타나, 리코더를 위한 사콘느,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등등 다양한 악기편성을 위한 작품들을 수록



Naxos 8.570190

로자: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 헝가리 농요 변주곡 외

필립 쿤트(vn) / 윌리엄 울프랭(pf)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미클로시 로자는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영화음악의 대가였다. '벤허', '퀴바디스', '아이반호', '엘시드'와 같은 대하역사극들의 음악들이 그의 손에 의해 탄생하였다. 순수음악쪽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은 헝가리 민속음악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곡들이다.



Naxos 8.557440-41

르클레르: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작품 전집

팰릭 스미스(fl) / 존 기븐즈(cemb) / 로라 블러스타인(vc)

18세기 작곡가인 르클레르는 프랑스 바이올린 악파의 대부로 기억되는 이름이지만, 플루트를 위한 작품들 역시 다수 남겼다. 그의 플루트곡들은 기교적인 화려함과 더불어 이 악기 특유의 풍부한 서정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보스턴 심포니의 수석으로 장기간 재임했던 미국의 정상급 플루트 연주자 팰릭 스미스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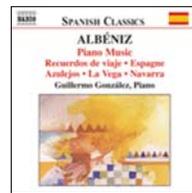


Naxos 8.570413

백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애슐리 워스 & 마틴 로스코이(pf)

백스는 교향곡 및 관현악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다수의 피아노곡들 역시 작곡하였다. 물의 흐름을 묘사한 Poisoned Fountain, 인상주의적인 작품인 Moy Mell, 북구색채가 농후한 그리고 스타일의 Hardanger, 교향시를 연상시키는 방대한 스케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을 수록하였다.



Naxos 8.570553

알베니스: 여행의 추억, 나바라 외

귀에르모 곤살레스(pf)

알베니스는 스페인의 쇼팽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의 향토색을 결들인 주옥같은 피아노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청년기 파리 유학시절의 작품인 Recue- rdos de viaje(여행의 추억) 전곡과 기교적으로 대단히 난해하면서도 혁신적인 음악적 내용의 미완성 유작인 '나바라', 등이 수록.



Naxos 8.570261

다케미츠: 피아노작품집

코타로 후쿠마(pf)

2003년 클리블랜드 쿤쿠르 우승자인 코타로 후쿠마가 일본의 세계적인 작곡가 토루 타케미츠의 피아노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초기작들에서는 드뷔시와 메시앙의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으며, 70년대 작품들에서는 당시 작곡가가 몰입했던 발리의 가믈란 음악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Naxos 8.570311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집 Vol.6

줄리아 브라운(org)

북독일의 휘벨을 근거지로 활약했던 북스테후데는 남독일의 파헬렐과 더불어 바로크 시대의 독일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던 양대기둥이었다. 특히 그가 청년 바흐에 끼친 음악적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번 6집에는 루터리안 코랄을 비롯하여 토카타, 전주곡, 칸초네타 등등 당대의 대표적인 오르간 장르들을 골고루 간추렸다.



Naxos 8.570510

로베트, 탠스맨, 브로우어, 히나스테라, 디용

토마 빌로토(guitar)

2006년 미국 GFA 콩쿠르 우승자인 프랑스의 신예 기타리스트 토마 빌로토의 낙소스 데뷔음반. 다양한 국적의 근현대작곡가들의 개성넘치는 기타소품들로 음반을 장식하였다. 히나스테라의 소나타, 로베트의 변주곡, 탠스맨의 카바티나, 브로우어의 오리샤스의 제전, 롤랑 디용의 트리엘라를 수록.



Naxos 8.570456

슈만: 합창음악(로망스와 발라드)

아쿠아리스 / 마르크 미샤엘 드 스메

1849년은 슈만에게 있어서 창작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특히 이 해에는 자신이 설립한 드레스덴의 코랄 소사이어티를 위하여 다량의 합창음악을 작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혼성합창을 위한 발라드와 로망스, 여성합창을 위한 로망스 전곡을 수록하였다.




Naxos 8.111263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베버: 콘체르트스틱, 소나타 1번

클라우디오 아라우(pf) / 필라델피아, 시카고 심포니 / 오먼디, 데포

칠레 출신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1947년에 녹음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거장의 장점인 강력한 파워가 돋보이는 열연으로 오먼디/필라델피아가 반주를 맡았다. 베버의 콘체르트스틱은 아라우가 평생 즐겨 연주했던 곡. 1946년에 녹음된 이 연주에서는 경쾌하고도 정교한 터치가 단연 돋보인다. 의외로 음반이 드문 베버의 피아노소나타 1번(1941년 녹음)도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11223

발레키레프: 피아노소나타, 쇼팽, 리스트, 월튼

루이스 켄트너(pf)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약했던 루이스 켄트너는 메뉴힌이 극찬해까지 않았던 재능있는 연주자였다. 그가 연주한 발라키레프 피아노소나타는 그라모폰으로부터 '작품이 요구하는 비르투오시티와 정교한 시적 내면을 함께 충족시키는 연주'라고 호평을 받았었다. 영국 작곡가 램버트가 협주곡 형태로 편곡한 리스트의 단테소나타가 흥미롭다.



Naxos 8.111315

존 맥코맥 1914-15 어쿠스틱 레코딩스

슈베르트, 베르디, 마스카니, 푸치니, 포스터 외

존 맥코맥 에디션의 5번째 음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편곡한 아베 마리아, 덴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나의 아일랜드 들장미'와 같은 귀에 익은 아일랜드 노래들, 리골레토와 라트라비아타와 같은 베르디 오페라의 아리아 등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그의 전설적인 음성을 만난다.



Naxos 8.111266-67

스트라빈스키: 레이크스 프로그레스

귀텐, 콘리, 테봄, 하렐 외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낙소스를 통해 선보이는 스트라빈스키 자작자연 시리즈의 첫 음반. 작곡가의 걸작오페라인 '레이크스 프로그레스' (탕아의 인생영정)의 1953년 녹음. 당시 메트에서 활동하던 영어권의 대표가수들이 총출동하였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소프라노 힐데 귀텐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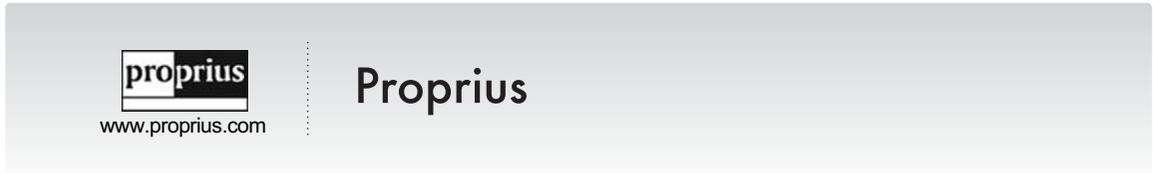



Naxos 8.226012

닐센, 랑헤-윌레, 와이스, 하르트만, 쿤첸: 세레나데와 로망스

덴마크 왕립해군합창단 /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오케타 / 아담 피셔

북구의 아름다운 저녁을 수놓았던 로맨틱 세레나데와 사랑노래들을 가득 담은 음반. 고전시대 작곡가인 쿤첸과 바이스, 낭만시대의 하르트만과 랑헤-윌레, 근대의 닐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덴마크 작곡가들의 서정적인 노래들이 음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덴마크의 신예 테너 마티아스 헤데고르의 맑은 음성이 매력적이다.




PRSACD 2040 (Hybrid-SACD)

페르골레지 & A. 스카를라티: 스타바트 마테르

수잔 리덴(소프라노) / 미카엘 벨리니(카운터테너) /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

26세로 요절한 작곡가인 페르골레지의 작품은 고급의 여러 '스타바트 마테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걸작이다. 최소한의 편성만으로 지극히 감동적인 음악을 이끌어낸 작곡가의 재능이 놀랍다. 보다 이전 세대 작곡가인 A 스카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역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 스웨덴 출신의 바로크 전문 소프라노 수잔 리덴과 북구를 대표하는 카운터테너 마카엘 벨리니의 청아한 음성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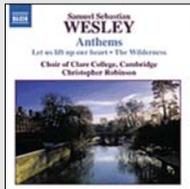
아울로스의 2007년 그라모폰 후보작 음반들



SDG 127

Best Baroque Vo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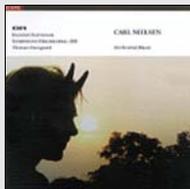
Bach: Cantata Series Volume 15 (BWV57, 64, 133, 151)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 John Elliot Gardiner



Naxos 8.570318

Best Choral

Wesley: Anthems
Choir of Clare College, Cambridge / Christopher Robinson



Dacapo 6.220518

Best Orchestral

Nielsen: Orchestral Works
Danish National Symphony / Thomas Dausgaard



WHLive 0013

Best Solo

Handel, Mahler, Lieberon: Songs
Lorraine Hunt Lieberson & Roger Vignoles



Opus Arte OA0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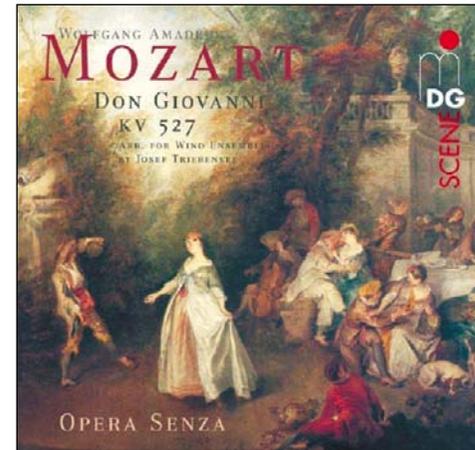
Best DVD

Mozart: Così fan tutte
Topi Lehtipuu / Luca Pisaroni / Nicolas Rivenq / Miah Persson / Anke Vondung
Despina: Ainhoa Garmendia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 Ivan Fischer



흥미로운 편곡판이 높은 완성도로 연주되었다!!

모차르트 돈조반니



모차르트 : 돈조반니(관악앙상블 편곡) 오페라 센차

MDG 903 1464-6 (Hybrid-SACD)
603 1464-2 (Normal CD)

MDG에서 흥미로운 음반을 내놓았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의 주요 장면을 관악앙상블버전으로 녹음한 것이다. 좀 유감스럽게도, 아주 독창적인 시도는 아니다. 몇 년 전에 <요술피리> 아리아의 플루트사중주버전을 녹음한 음반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음반은 수록된 아리아가 단지 네 곡이어서 문자 그대로 '맛만 볼 수' 있었던 데 비해, 여기서는 20트랙에 걸쳐 주요 장면 거의 전부를 망라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요제프 트리벤제(1772-1846)의 편곡판은 말하자면 현악기군 없는 2관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보에와 클라리넷, 호른, 바순이 각각 두 대씩이고 더블베이스를 임의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편곡 자체는 원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편성으로는 총주요 연주되는 서곡 첫머리의 강렬한 어택부터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편곡판에는 독특한 명량함과 화사함이 넘친다. 오페라 센차가 따뜻한 음색으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멋지게 전달하고 있듯이 말이다. (체를리나와 돈조반니가 부르는 이중창 '내

게 그대 손을, 연인이여[La ci darem la mano]대목을 들어보라.) 이들은 모두 기교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전곡에 걸쳐 다이내믹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미묘한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 녹음은 초점이 뚜렷하고 잔향이 비교적 억제되어 있으면서도 건조하지 않다. 설령 이 음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건 연주 탁시 아니며, 녹음 탓도 아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황진규 from 월간 그라모폰 코리아 10월호
(전체를 허락해주신 황진규님과 그라모폰 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낙소스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원고(2)

유명인과 유명언론이 추천하는 낙소스

지난 호에 이어 세계 최강의 레이블 <낙소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본사에서 보내온 특별원고의 나머지 분을 심는다. 낙소스의 유명 연주가 및 지휘자가 남겼던 말과 유명 음악지의 찬사의 글로, 현재 세계 음악시장에서의 낙소스의 위치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주자들의 말]

지난 20년간 낙소스는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많은 작품들을 용감하게 녹음하고, 많은 연주가들과 작곡가들의 꿈을 실현시켜줌으로써, 레코드 산업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내 생각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낙소스는 수년 동안 레코드음악의 선두주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마린 알소프(지휘자)*

15년전에 시작된 낙소스와의 인연은 오케스트라의 생명이었고 그리고 폴란드 음악의 인식에 엄청난 행운과 발전을 안겨줬다. 약 40개 CD의 표준 레퍼토리를 녹음했고 30개의 폴란드 음악을 연주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3백만장이나 팔려나갔다고 하니) 폴란드 음악의 세계적인 홍보를 위한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다. 낙소스 배포능력은 인상적이다. 런던, 도쿄 백화점에 가거나 스페인이나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 가서도 나는 내 음반들을 볼 수 있다. 나는 종종 더 유명하고 더 역사 깊은 회사(EMI 혹은 DECCA 등)와도 약 70개의 CD를 제작했지만, 그것들은 지금 음반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다. *-안토니 비트(지휘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게 낙소스는 오늘날 가장 매력적인 명승지가 되고 있다. 낙소스는 클래식 시장이 여전히 생기에 차 있음을 보여줬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만 생생한 것이 아니다! 음악가에게나 청중에게 새로운 것을 찾게 하는 바로 그 레이블이 낙소스다. *-제임스 주드(지휘자)*

낙소스의 가격정책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어떤 위험 부담을 줄여줬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접해보지 않은 음악을 담은 음반들을 쉽게 구입해서 들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사며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제러미 서멀리(옥스퍼드 카메라타 지휘자)

벌써 낙소스가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우리가 베토벤 소나타와 모차르트 협주곡을 처음 녹음했을 때가 어제 같은데 말이다. 이후 낙소스는 인상적인 카탈로그를 갖춘 위대한 레이블이 되었는데, 수백만의 음악 팬과 전 세계 컬렉터에게 좋은 가격에 음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공로가 엄청 크다. 전문가들조차도 신보가 나오면 너무나 많은 흥미를 갖게 된다. 나 역시 엄청난 클래식, 재즈 참고가 마련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 막강한 낙소스 레이블의 가장 바쁜 아티스트 중의 한사람이 된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에뇌 안도(피아니스트)*

15년 정도 되었을까, 내겐 낙소스에서 몇몇 음반들을 낼 기회가 생겼다. 레퍼토리는 매우이색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었다. 지휘자로서 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경험이 나를 진정한 지휘자로 만들었고 더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약 20년 전에 지휘를 시작했을 때, 나는 훌륭한 지휘자가 되기를 원했고, 함께 녹음하고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잘 화합할 수 있기를 진정 원했다. 낙소스는 바로 그 기회를 주었다. 콘서트에서 사람들은 낙소스에 나와 있는 나의 많은 녹음들을 알고 있었고, 칭찬도 많이 했다. 매우 기쁜 일이다.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첼리스트 & 지휘자)

[음악언론의 말]

낙소스가 성취한 일의 크기를 2005년 3월 피아니스트 이틸 비레트와 인터뷰하면서 다시금 깨닫고 감동했다. 두 권으로 된 쇼팽의 녹턴의 출시 기념 인터뷰였는데,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음반을 무려 200만장 이상 팔았다고 말했다. 그녀와 낙소스 회사에게 좋은 뉴스이지만,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음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맛보게 했던 것은 분명 음악 산업에 희망을 준 좋은 뉴스였다. *-존 에반스(클래식 FM 매거진 편집장)*

낙소스는 귀한 20년의 세월에 최저가격의 고품질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CD소비자 시장을 혁신해왔다. *-앤소니 홀든(런던 옵저버 지)*

1980년대 영국의 조그만 아웃렛에서 명곡 레퍼토리를 담은 클래식 음반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한 낙소스가 레코드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줄이야. 마리아 클리젤, 코다이 사중주단, 마기니 사중주단 등 많은 연주자들이 이 레이블에 모였다. 최근에는 본 윌리엄스의 음악, 핀치의 가곡, 로슬라베츠의 바이올린 작품, 보리스 차이코프스키의 오케스트라 작품 등 여러 흥미롭고 중요한 레퍼토리를 최초 녹음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사이먼 스탠디지, 대니얼 호프, 지휘자 마린 알소프,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피아니스트 마틴 로스코, 피터 도노호 등 몇몇 탁월한 연주자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다.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메이저 레이블을 충분히 위협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낙소스가 클래식 레퍼토리 가운데 잊혀진 작품들을 천착해서 보다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한 날들이

여 돌아오라, 낙소스여! *-BBC 뮤직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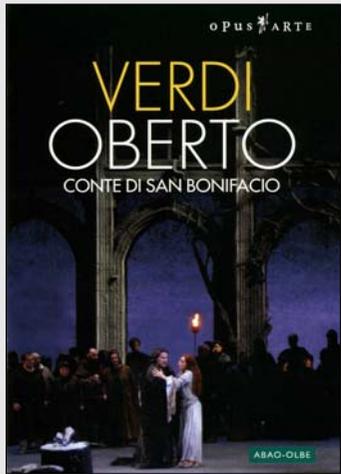
작은 도토리에서 거대한 오크트리로 성장한다는 말이 회자되지만 낙소스의 경우-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정말 그 말이 꼭 들어맞는다. 그 레이블의 성공원리는 너무도 단순했다. 그것은 클래식의 엄청난 레퍼토리들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어떤 다른 레이블보다 더 많은 클래식 레코드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20년간 거대한 레이블로 성장했다. 2년전에 그라모폰은 낙소스를 마침내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했다. 낙소스 20주년을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주목해본다.

-제임스 줄리(전 그라모폰 편집장)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0982

베르디: 오베르토

위대한 베르디의 첫 오페라! 그 첫 영상물!

베르디는 평생 26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그 첫 작품이 <오베르토, 산 보니파초 백작>이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하나같이 명작이어서 이 처녀작이 공연될 기회는 좀처럼 없었지만 스페인의 빌바오에 신축된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를 공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오베르토>도 사이클에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샤이, 그리고 왕년의 대표적인 베르디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후원하고 있다. 레오노라(소프라노)를 배신하고 그녀의 원수 집안인 에체리노 가문의 딸 쿠니차(메조소프라노)와 결혼할 예정인 리카르도(테너), 이를 복수하고자 하는 레오노라의 부친 오베르토 백작, 이렇게 네 등장인물이 오페라의 기본 구도를 이룬다. 줄거리와 음악 모두 벨리니의 명작 <노르마>를 규범으로 했다는 평을 듣지만, 역시 사자는 새끼 때부터 다르다는 비유를 실감할 만큼 베르디 특유의 박력이 돋보인다. 연출자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무대 및 의상 담당 도메니코 프랑키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무대를 꾸몄으며, 특히 오베르토를 부른 마린스키 극장 출신의 베이스 일

다르 압드라자코프가 호평을 받았던 2007년 1월의 최신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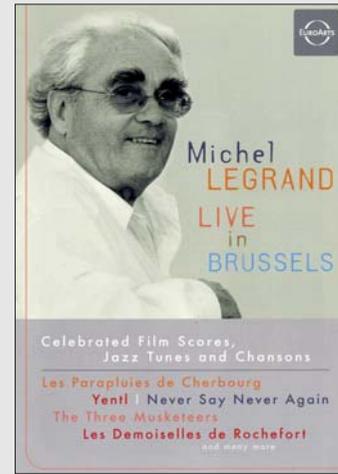
[보조자료]

○ **(제1막)** 쿠니차와 리카르도의 결혼식이 벌어질 예정인 바사노가 그 배경이다. 리카르도에게 배반당한 레오노라 역시 이곳에 도착했다가 뜻밖에 오랫동안 떨어져있던 아버지 오베르토와 마주친다. 오베르토는 레오노라의 잘못을 크게 질책하면서도 리카르도에게 복수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다. 한편 쿠니차는 리카르도가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다가 레오노라와 오베르토를 만나게 된다. 원수 집안의 부녀지만 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쿠니차는 오히려 레오노라를 동정하고 많은 군중 앞에서 리카르도의 잘못을 폭로한다. 모욕감을 느낀 리카르도는 오베르토와 결투를 벌이기로 한다.

○ **(제2막)** 쿠니차는 여전히 리카르도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가 레오노라에게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투가 벌어지기로 한 곳으로 무대가 전환된다. 쿠니차와 레오노라가 등장하여 두 사람의 결투를 지지하는데, 쿠니차는 리카르도와 레오노라를 설득하여 다시 두 사람이 맺어지도록 주선한다. 마음은 쓰리지만 결투를 막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오베르토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내 결투를 고집한다. 결국 숲에서 벌어진 결투에서 리카르도가 오베르토를 쓰러뜨리게 된다. 레오노라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라 탄식하고, 이곳을 떠난 리카르도는 용서를 빌며 긴 여행을 통해 죄값을 치르겠다는 편지를 레오노라에게 전한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수입 DVD



EuroArts 2055118

미셸 르그랑의 브뤼셀 라이브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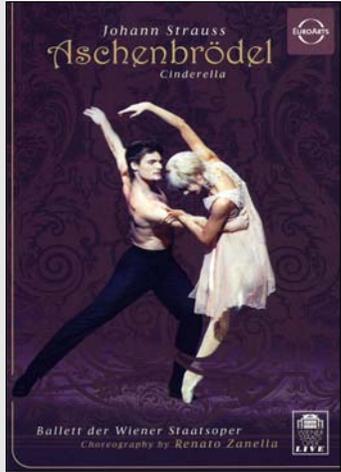
영화음악, 재즈, 클래식까지 미셸 르그랑의 전방위 무대

미셸 르그랑(1932~)은 너무나도 유명한 프랑스 음악가로서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거장이다. 파리 음악원에 공부한 다음 재즈로 전환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가 20대이던 1950년대에 유럽의 재즈계의 리딩 뮤지션으로서 본고장의 대가인 디지 길레스피, 마일즈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스탠 게츠, 빌 에반즈와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물론 르그랑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화음악이다. 프랑스 사람인데도 할리우드의 오스카상에 무려 열세번이나 노미네이트되고 그중 세 차례나 거머쥐었다는 것으로도 그 성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DVD는 2005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콘서트 실황이다. 1부는 르그랑이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그의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세르부르의 우산>처럼 너무 알려진 곡 보다는 진정한 영화음악의 보물들, 예컨대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 <딩고>, <42년의 여름>, <엔틀>등을 담았다. 2부는 재즈와 샹송이다. 73세의 르그랑이 아직도 녹슬지 않은 솜씨로 피아노와 보컬을 담당하며 유려피안 재즈와 르그랑표 샹송의 진수를 들려준다.



Including music from

- The Three Musketeers
- Best Friends
- Never Say Never Again
- Dingo
- Les Demoiselles de Rochefort
- Summer of '42
- Yentl
- Les Parapluies de Cherbourg
- The Happy Ending
- La Valse des Lilas
- Ray's Blues
- Family Fugue
- Le Vieux Costume
- Edith
- Rupture



EuroArts 2055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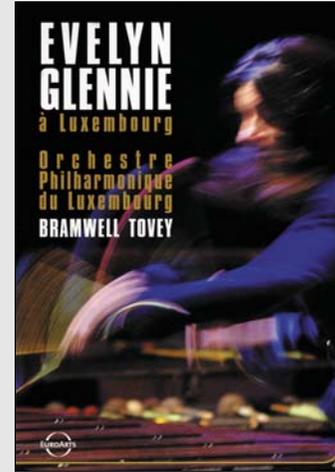
요한 슈트라우스: Aschenbroedel - Cinderella < 신데렐라 >

크리스티앙 라크루아의 무대와 의상,
가장 환상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스토리는 행운을 소망하는 젊은 여성들의 꿈이다. 당연히 예전부터 발레의 소재가 되어왔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에 의거한 프레데릭 에쉬튼의 작품이다. 또 꼭 에쉬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신데렐라 발레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을 사용했다. 그런데 프로코피에프에 앞서 신데렐라를 발레음악으로 작곡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채 작곡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덜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흥겨운 왈츠 리듬과 슈트라우스 특유의 풍부한 선율은 신데렐라의 분위기에 너무도 잘 어울린다. 빈 국립 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안무가 레나토 자벨라는 새천년을 목전에 둔 1999년, 새로운 <신데렐라>를 선보였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루아가 무대와 의상을 맡아 3막 2장에는 화려한 결혼예복 패션쇼를 펼치는 등 휘황찬란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줄거리도 현대 패션계를 무대로 대폭 수정되었다. 주인공 그레테(신데렐라)를 맡은 에바 페터스의 청순한 매력도 중요한 감상 포인트!

[보조자료]

- 1898년 봄, 빈의 일간지 '디 바게'가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할 발레의 리브레토를 공모한다. 심사위원 중에는 당시 빈 궁정 오페라의 음악감독이자 초연 지휘자로 예정되었던 구스타브 말러도 포함되었다. 당선작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알베르트 콜만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작가의 것이었다.
- 1899년 6월, 발레를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슈트라우스가 사망한다. 작곡가 요셉? 바이어는 슈트라우스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발레를 완성할 것을 의뢰받는데, 음악은 반드시 슈트라우스의 선율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 1900년, 말러가 지휘를 거절함에 따라 슈트라우스의 미망인 아델레는 빈 대신 베를린에서 초연하기로 결심한다. 초연은 1901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안무는 에밀 그라에브가 맡았다.
- 1908년, 빈 궁정 오페라의 신입감독 펠릭스 바인가르트너가 <신데렐라>를 공연하기로 결정한다. 안무는 베를린 초연판을 참고하여 요셉 하스라이터가 제안무했다. 1919년에는 빈 오페라 50주년을 맞아 재수정된 프로덕션으로 공연되었다.
- 1979년, 영국 음악학자 피터 켈프에 의해 고증되어 영국의 노던 발레 씨어터에서 공연되었다. 또한 지휘자 리처드 보닝이 최초의 전국 음반 녹음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는 물론 프랑스와 쿠바에서도 공연되었다.
- 1999년 12월 22일,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레나토 자벨라에 의한 새로운 프로덕션이 빈 국립 오페라에서 초연된다.



EuroArts 2054398

Evelyn Glennie Luxembourg Concert

Beethoven: Overture 'Leonore' III
Masson: Knzertstuck for Snare drum & Orchestra
Schmitt: 6 Miniatures for Marimba solo
Vivaldi: Concerto in C major RV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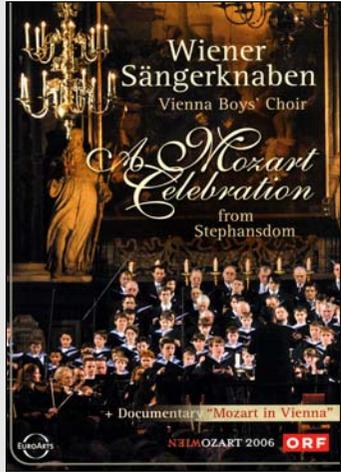
Evelyn Glennie(percussion)
Orchestre Philharmonique du Luxembourg
Bramwell Tovey

1999년과 2007년의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친근한 이름인 이블린 글레니. 12살 때 청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급 타악기연주자로 성장했던 글레니의 인생여정은 음악계의 가장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리 대신 몸의 진동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의 연주는 정교함과 화려함을 자랑한다. 수많은 현대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타악기를 위한 작품들을 헌정하였고, 그 역시도 기존의 클래식 레퍼토리를 타악기를 위해 꾸준히 편곡해왔다. 본 영상물은 2004년 9월 룩셈부르크 대극장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으로 브람웰 토비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와의 협연을 수록한 것이다. 베토벤의 레오노레 3번 서곡으로 시작되는 이 콘서트는 글레니의 초절기교를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호가들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 아이슬랜드 작곡가 마손의 스페어드럼을 위한 콘체르트 스펙, 독일 작곡가 슈미트의 마림바독주를 위한 6개의 소품이 적절한 조명효과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지며, 글레니가 비브라폰을 위해 편곡한 비발디의 협주곡 RV443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조자료]

-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태어난 이블린 글레니는 8세부터 청각이 약화되기 시작해서 12살에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였다.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졸업직후부터 프리랜서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음악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지금까지 140편이 넘는 작품들이 글레니를 위해 씌어졌으며, 베를린 필을 비롯한 정상급 악단들과의 협연을 통해 타악기주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적인 명성을 확보한 연주자로 성장하였다.
- 글레니는 소리 대신 몸의 진동을 통해 음악을 느낀다. 그가 맨발로 무대에 서는 것은 진동을 보다 섬세하게 느끼기 위해서다. 글레니의 프로필을 담은 짤막한 도큐멘터리가 부가영상으로 제공된다.
-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 금융의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룩셈부르크 필하모니는 이 나라의 음악역량을 대표하는 악단이다. 1933년에 창단된 이 악단은 창단 70주년이던 2003년 내한연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음악감독인 영국 출신의 브람웰 토비는 캐나다 밴쿠버 심포니의 음악감독 역시 겸임하고 있다.





EuroArts 2055168

Wiener Sängerknaben – Vienna Boy's Choir A Mozart Celebration from Stephansdom

Mozart: Coronation Mass K317,
Ave verum corpus K618,
Church Sonata K278 & 329 etc.

Wiener Sängerknaben
Radio-Symphonieorchester Wien
Bertrand de Billy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빈 소년합창단의 특별한 연주회상황 빈 소년합창단의 팬들이라면 이 DVD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1월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빈 소년합창단의 특별한 연주회상황을 담았다. 500여 년 전 합스부르크 궁정합창단으로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소년합창단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던 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앙상블과 모차르트가 남긴 다양한 종교음악들로 알차게 꾸러진 프로그램이 음악애호가들을 기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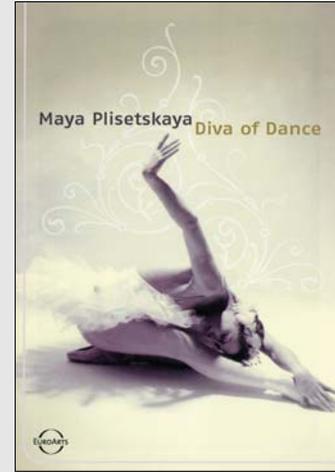
게 만들 것이다.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두 편의 교회소나타(K278, 329)가 연주회의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하며, 정상급 소프라노 산드린 피오가 저녁기도 중 '라우다테 도미눔' 과 성모초청기도 중 '아뉴스 데이' 를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레퀴엠과 더불어 모차르트를 대표하는 종교합창곡인 대관식미사를 빈 소년합창단과 코러스 비엔네시스가 함께하였으며, 이들이 노래하는 아베 베룸 코르푸스 역시 만날 수 있다. 부가영상물 역시 대단히 푸짐하다. 마리에케 슈뢰더가 제작한 한 시간 분량의 음악 다큐멘터리, 'Mozart in Vienna' 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바렌보임, 크바스토프 등의 인터뷰와 함께 빈에서의 모차르트의 행적을 구석구석 이 영상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보조자료 >

○ 1498년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의해 궁정성당에 봉사하는 성가대로 창단된 빈 소년합창단은 오늘날에도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슈베르트와 하이든은 소년 시절 빈소년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모차르트가 자주 이 단체를 지휘하였다.

○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는 잘츠부르크대성당의 성모마리아상 대관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되었다는 설과 오스트리아황제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기간 중에 연주되었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후자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뉴스테이의 소프라노 솔로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의 백작부인의 아리아 '아름다운 날들은 가고'의 선율을 차용한 점이 이채롭다.

○ 이 콘서트가 펼쳐진 장소인 빈의 슈테판대성당은 모차르트와 여러모로 인연이 많은 곳이다. 콘스탄체와의 결혼식이 여기서 거행되었으며, 아들의 세례와 모차르트의 장례식 역시 이곳에서 펼쳐졌다.



EuroArts 2054938

마야 플리세츠키야, 춤의 디바

볼쇼이 발레의 전설, 마야 플리세츠키야의 모든 것

마야 플리세츠키야(1925~)는 러시아 발레, 특히 볼쇼이 발레의 전설이다. 한 사람의 발레리나를 넘어서 안무가로, 행정가로도, 심지어 배우로도 일가견을 이룬 인물인 것이다. 플리세츠키야는 연약한 발레리나가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무용수였으며 소비에트 시절에는 권력의 시녀로 봉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끝내 지켜냄으로써 더욱 많은 찬사를 받았다.

2005년에는 그녀의 80세를 기념하는 갈라 공연이 러시아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펼쳐졌는데, 이때도 춤을 추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또한 러시아의 유명 작곡가 로데온 셰드린은 플리세츠키야의 남편이다. 본 영상물에는 플리세츠키야의 정수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백조의 호수>나 <돈키호테> <라이몬다> 등 고전작품부터 20세기 러시아 발레인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멘>,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빈사의 백조>까지 만나게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프랑스의 모리스 베자르가 안무한 <이사도라>, 조르주 동스의 춤으로 유명한 <볼레로>에도 도전하고 있다.

[보조자료]

○ 유태계로 알려져 있는 플리세츠키야는 1943년 볼쇼이 발레에 입단했다. 기질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인데다가, 소비에트 체제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부친이 처형당하고 모친은 강제수용소에 유배당했을 정도로 반골기질이 강한 출신이어서 위대한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당국과는 늘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1959년 이전에는 서방 공연이 제한받기도 했다.

○ 플리세츠키야는 위엄 넘치는 발레리나의 전형이며 무대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특히 오늘날의 가녀린 발레리나와는 체격부터 판이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안무하여 <안나 카레니나>를 발레로 만드는가 하면, 끝내 조국을 등지지 않았지만 무용수로서 은퇴한 다음에는 스페인 국립 무용단 감독을 비롯하여 서방 발레계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

○ 플리세츠키야 남편 로데온 셰드린 역시 아내의 중요한 협력자이다. 특히 플리세츠키야를 위해 <곱사등이 땅아지>를 작곡했으며, 오페라 <카르멘>을 타악기의 다양한 음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편곡하여 알베르토 알론소의 안무에 사용하도록 했다. 셰드린이 편곡한 <카르멘>은 톨랑 프티, 매튜 본 등 다른 안무가에게도 많은 영감을 불어넣었다.





Humperdinck: Hansel und Gretel

Antigone Papoulkas,
Anna Gabler,
Hans-Joachim Ketelsen,
Irmgard Vilsmäier, Iris Vermillon
Staatskapelle Dresden
Michael Hofstetter

헨젤과 그레텔(Hänsel und Gretel)은 엥겔버트 뉘퍼딩크가 작곡한 3막의 독일어 오페라다. 그림(Grimm)형제의 유명한 동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로 대부분은 작곡가의 누이 아델하이트 베테가 쓴 대본에 의해 1893년에 작곡되어, 같은 해 12월 바이마르의 궁정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뉘퍼딩크는 이 오페라를 "동화 오페라"라고 묘사했다. 어린이들의 친진한 노래와 춤, 마녀의 우스꽝스러운 등장, 전원적인 숲속의 장면과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 내용과 곡 전체를 아우르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자주 상연된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2월 드레스덴의 유서 깊은 쟈퍼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졌던 공연을 수록한 것이다. 카타리나 탈바흐의 깔끔한 연출은 관객의 여러 어린이 관객들과 진지한 오페라 애호가 양쪽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간결하면서도 동화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한 토폴루티의 무대미술 역시 훌륭하다. 성악가들 역시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각자의 배역에 최적화된 연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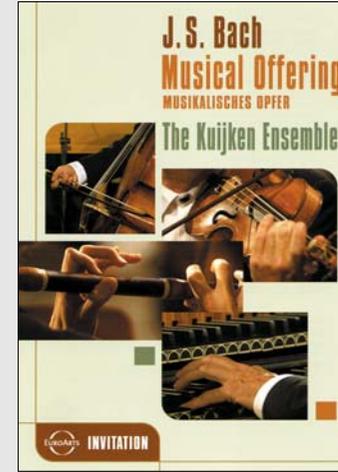
EuroArts 2055888

[보조자료]

○ 엥겔버트 뉘퍼딩크는 1854년 독일 지그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쾰른음악원과 뮌헨왕립음악원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1880년대 초반에는 바그너의 조수로 활동하면서 대작곡가의 말년의 든든한 음악동반자가 되었다. 특히 바그너의 마지막 걸작인 '파르지팔'의 상당부분이 뉘퍼딩크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 원작 동화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오페라의 줄거리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가난한 빚자루장수를 아버지로 둔 두 남매 헨젤과 그레텔은 숲에서 딸기를 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숲속을 헤메다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였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마녀의 속임수. 마녀에게 사로잡혀 죽을 고비를 맞지만, 기지를 통해 마녀를 물리치고 무사히 탈출하여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며 오페라는 끝을 맺는다.

○ 연출자 카타리나 탈바흐는 한 때 독일을 대표했던 여자배우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 중에서 귄터 그라스 원작의 <양철북>(1979년작)은 국내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현재도 관록의 배우로 맹활약 중이며, 틈틈이 연출가로도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J.S. Bach: Musical Offering

The Kuijken Ensemble

빌란트(비올라 다 감바), 시히스발트(바이올린), 바르톨트(트라베르소플루트)의 카위컨 삼형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맹렬히 불붙기 시작했던 고음악 열기에 중심이 되었던 이름들이다. 각자 솔리스트로서의 역량도 훌륭하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실로 대단하다.

본 영상물은 2000년 7월 28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바흐가 '완성' 시켰던 마지막 걸작인 '음악의 헌정'을 통해 이들 삼형제가 펼쳐나가는 심원한 음악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들의 오랜 음악동반자의 한 사람인 하프시코드연주자 로베르트 코넨이 함께하였다.

'음악의 헌정' (BWV1079)은 바흐가 프리드리히 대왕의 궁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완성된 작품이다. 궁정작곡가로 있던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엠마누엘이 아버지를 초대했던 것. 바흐는 대왕이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리체르카레를 즉흥적으로 연주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귀향 이후 바흐는 이를 정식 작품으로 완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의 헌정이다. 바흐는 이후 푸가의 기법을 작곡했지만 끝내 완성시키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EuroArts 2050366

[보조자료]

○ 카위컨(과거에는 쿠키켄으로 표기했었다.) 패밀리는 바흐 가족 못지않은 현대의 유명한 음악가족이다. 형 빌란트는 바로크첼로와 비올라 다 감바의 대가이며, 둘째 시히스발트는 바로크바이올린주자이자 시대악기 오케스트라, 라 프티 방드의 지휘자로서도 맹활약 중이다. 동생 바르톨트는 트라베르소 플루트의 명인이다. 시히스발트의 아내 마를레인 티에르는 비올라연주자이며, 이들 부부의 두 딸 베로니카와 사라 역시 각각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자들이다. 빌란트의 두 아들 중 형 피에트는 하프시코드 연주자이며, 동생 필립은 도쿄에서 유명한 바로크악기제작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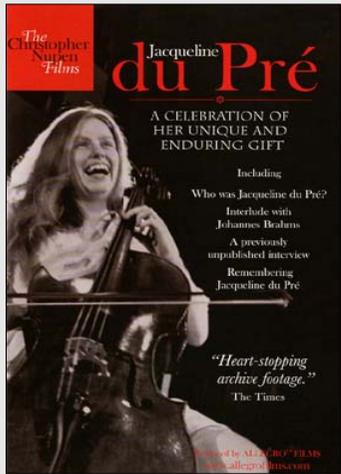
○ 로베르트 코넨은 브뤼셀의 왕립음악원에서 오르간과 하프시코드를 배웠다. 바로크음악의 대가로서, 코넨은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1980년부터는 자신의 모교인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하프시코드를 강의하고 있다.





www.allegrofilms.com

The Christopher Nupen Films



불세출의 천재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 영상물의 결정판 !!!

크리스토퍼 누펜 필름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독특하고 무한한 재능에 대한 찬사'

- 최초로 공개되는 1980년 듀프레와의 귀중한 인터뷰 장면 포함
- 더 타임스 극찬 "심장이 멎을 듯한 기록물"
- 저명한 필름 제작자 크리스토퍼 누펜이 직접 안내
- 다양한 흑백 및 컬러 정지 화상으로 꾸며진 영상편지 :브람스 인터루드
- 바렌보임, 주커만, 필만, 메타, 플리스, 피셔-디스카우, 아쉬케나지, 후츨 등 약 20명 정도의 친구와 동료 음악가들이 직접 등장해 증언하는 천재의 생애와 위대한 예술

◆ 전에는 볼 수 없던 장면 수록한 귀중한 DVD

2007년 재클린 듀프레의 DVD가 또 나왔다. 크리스토퍼 누펜 제작 필름을 영국 알레그로 레이블에서 내놓은 것. 제목은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독특하고 무한한 재능에 대한 찬사(A celebration of her unique and enduring gift)'다. 주지하듯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듀프레 영상물은 이미 세 가지가 나와 있다. EMI의 '재클린

듀프레를 기억하며(Remembering Jacqueline Du Pré)와 최근 나온 '전설적인 영국 연주자들(Legendary British Performers)', 그리고 BBC 오페스 아르테의 '재클린 듀프레의 초상(Jacqueline du Pré In Portrait)'이 그것들이다. 혹자는 '또 재클린 듀프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재클린 듀프레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들에게는 그런 의문 자체가 커다란 실례다. 그들에게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여성 첼리스트의 영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기존 영상물 중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만든 짜깁기 아이템이 아니고,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금세 감동이 밀려온다.

◆ 저명한 필름 제작자 크리스토퍼 누펜 직접 출연 감수

이 영상물은 저명한 필름 제작자인 크리스토퍼 누펜이 직접 가이드로 출연하여 재클린 듀프레에 관한 애정 어린 인트로덕션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재클린 듀프레는 누구였는가'라는 타이틀로 듀프레의 삶을 스케치하는 영상 바이오그래피로 시작한다. DVD를 올려놓으면 화면은 새파랗게 젊은 바렌보임이 급히 동료가 있는 연습실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피아노 앞에 바렌보임과 아쉬케나지가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뒤프레, 바렌보임, 필만, 메타가 각기 남의 악기를 들고 장난기 어린 연주를 펼치는 장면, 차창이 보이고 그녀가 훑얼거리면서 연주하는 장면 등 크리스토퍼 누펜 필름의 익숙한 장면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온다.

◆ 친구들의 입으로 듣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이지만, 듀프레가 필만, 주커만, 바렌보임, 메타와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또 봐도 새롭다. 그들은 차츰 다섯 명의 '유대인 음악 마피아'라고 했는데, 듀프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명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근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영상과 나이가 모습에 교차하면 묘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네 명의 입에서 들려오는 듀프레 이야기는 너무도 생생하다. 모두 흥미로운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녀의 남편이었던 바렌보임이 그녀의 성격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음악가로서 그녀를 극찬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 영상에는 크리스토퍼 누펜 필름의 개가였던 다섯 사람의 슈베르트 송어 오중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지루하기는커녕 그렇게 많이 봐서 익숙하면서도 장면이 나오면 또 가슴이 뭉클해진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 메조소프라노 자넷 베이커의 그 시절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녀는 듀프레 친구들의 반주에

맞춰 가곡 '송어'를 노래하는데, 이것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다! 베이커의 노래를 냈이 나간 듯 입을 조금 벌리고 바라보는 모습. 마치 어린아이처럼 친진한 눈망울로 듣고 있는 제키의 모습!

◆ 무언의 영상편지 - 브람스 인터루드

후반부에는 '브람스 인터루드(Brahms interlude)'라는 특별한 트랙도 마련했는데, 매우 인상적이다. 브람스의 첼로소나타 E단조, op.38의 첫 악장과 함께 전후반 주로 그녀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흑백 및 컬러 정지 화상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녀가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무언의 영상 편지처럼 생각된다. 브람스의 중후한 음악과 함께 그녀의 다양한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천재 첼리스트의 짧은 생애,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위대한 예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섹션은 12분 정도로 꾸며졌다. 듀프레와 바렌보임이 연주한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음반, 브람스 첼로소나타의 결정판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외국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그들이 연주한 LP가 고가에 낙찰된다. 그만큼 듀프레의 깊은 정신성을 느낄 수 있는 연주라는 것인데, 그 완벽한 연주가 이 특별한 영상 트랙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최초로 공개되는 1980년 듀프레와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약 15분에 걸친 듀프레와의 귀한 인터뷰 내용도 담았다. 1980년에 이뤄진 이 인터뷰는 그러니까 1973년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은퇴한 후 약 7년이 된 시점이고, 또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약 7년 전의 기록인 셈이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고르지 못한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활짝 웃던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한 마디 한 마디 하는데 무척 힘겨워 하는 듀프레. 한창 연주를 할 젊은 나이에 천재 첼리스트는 병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눈동자를 떨며 간신히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그렇게 활달하고, 그렇게도 엄청난 힘과 정열로 연주하던 그녀에게 닥친 불행한 운명이 몹시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장면들인데, 그녀는 간신히 웃고 있지만, 그녀와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내내 흐느끼게 한다.

◆ 듀프레 팬의 필수 영상물 - 심장이 멎을 듯한 기록물

천재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영상물이라면 어떤 것이든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DVD는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히 값진 것이다. 크리스토퍼 누펜의 세심한 포맷 자체도 그렇지만 영상 곳곳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필름 메이커가 듀프레에 대해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렌보임, 주커만, 필만, 메타를 포함해, 윌리엄 플리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후츨 등 약 20명 정도의 친구와 동료 음악가들이 등장해 그녀의 짧은 생애와 위대한 예술을 증언하는 부분은, 듀프레의 사생활과 예술적 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귀중한 DVD를 본 소감? 글썽, 표지에 적혀있는 타임스지가 표현한 바 그대로다. "Heart-stopping archive footage", "심장이 멎을 듯한 기록물"이다.



2007 제2회 바흐와 그의 동시대 작곡가들 국제 바흐페스티벌

International Bach Festival 2007

10.18(목)
세종체임버홀 | 오후 7시30분
나이젤 노스 류트 독주회 I
바흐의 류트 음악
류트모음곡 : G단조 · E단조 등

10.19(금)
금호아트홀 | 오후 7시30분
나이젤 노스 류트 독주회 II
류트 음악의 황금기
다울랜드 · 발레 · 바이스 등

10.26(금)
금호아트홀 | 오후 7시30분
피에르 앙파이 첼발로 독주회 I
앙파이의 건반음악사 순례
버드 · 쿠프랭 · 스키틀라티 · 바흐 등

10.27(토)
세종체임버홀 | 오후 7시30분
피에르 앙파이 첼발로 독주회 II
골드베르크 변주곡
토키타 · 영국모음곡 · 골드베르크 변주곡

10.27(토)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 | 오전 9시30분
제2회 국제 바흐 학술 심포지움
발표자
Christoph Wolff(하버드대 교수)
"최근에 발견된 바흐 연구자료"
John Butt(글래스고대 교수)
"바흐 수난곡의 해석"
Yoshitake Kobayashi(세이조대 교수)
"바흐의 작품에 나타나는 3차원적 사고"



10.28(일)
영신아트홀 | 오후 3시
존 버트 오르간 독주회
렉처 콘서트
Prelude and Fugue G장조 · Concerto C장조
나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등

10.28(일)
세종체임버홀 | 오후 7시30분
엠마 커크비 독창회
영국의 오르페우스, 퍼셀과 다울랜드
류트반주 : 아콕 린드베리 · 존 다울랜드 · 헨리 퍼셀의 류트송

10.30(화)
세종체임버홀 | 오후 7시30분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회 I
엠마커크비와 함께
관현악 모음곡 C장조 · 웨딩 칸타타 · 칸타타 BWV84

10.31(수)
세종체임버홀 | 오후 7시30분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회 II
바흐와 비발디
바흐 : 오보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 : 사계

주최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KBS 한국방송 협찬 | 삼성생명 | Sun Life Financial | FRANCE EXPRESS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 티켓파크 www.ticket.interpark.com 1544-1555
문의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2220-1512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수사네 룬덴 베스트 컬렉션

The very best of
SUSANNE LUNDENG 수사네 룬덴

Jeg ser deg søte lam

|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



국내에서만 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수사네 룬덴의 베스트 컬렉션 <The very best of Susanne Lundeng>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여기 모인 옛 친구들>, <뢰딩겐의 결혼행진곡>, <이상한 여행>...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바다와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스런 연주곡과 노래들.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aulosmedia.co.kr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표지사진
나단 밀스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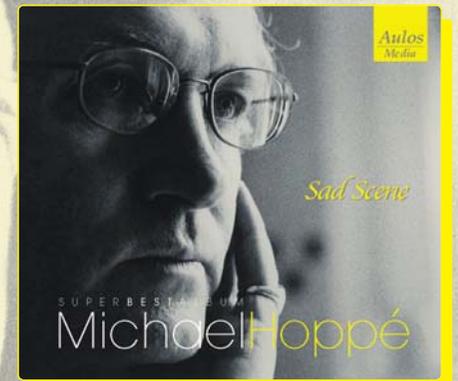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10월호
통권 제 27호 발행 : 2007년 9월 24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픈 선율의 마술사
마이클 호페
수퍼 베스트 앨범

Sad Scene
“슬픈 풍경”



영국 뉴 에이지 음악의 거장 마이클 호페의 하이라이트!
그의 애잔한 명곡들은 이 한 장에 모두 들어있다.
특별 보너스 트랙으로 아메리카, 하와이의 장엄한 풍광을 담은
장엄한 땅(This Majestic Land) 도 마련했다.